

연설술 1권(A)

1장. 연설술과 변증술의 대조, 연설술의 유용성

1354a 연설술은 변증술의 짝이다. 왜냐하면 둘 다 이런 대상들, 즉 그것들을 인식하는 일이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속하고 특정 학문의 일이 아닌 대상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둘 다에 참여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어느 정도까지는 [5] 논변을 검토하고 지지하는 일과 변호하고 고발하는 일을 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러한 일들을 되는 대로 행하지만, 어떤 이들은 익숙한 습관을 통해 행한다. 그러나 양쪽의 방식으로 가능하므로, 분명히 그것들을 또한 방법에 의해 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익숙함을 통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발적으로 [10] 목표에 이르는지 그 원인을 고찰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고찰이 기술의 과제라고 동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설의 기술》을 편찬했던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 기술의 일부만을 제공했다(왜냐하면 설득수단들만이 기술의 영역 속에 있고, 다른 것들은 부가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설득의 몸통인 생략삼단논법들에 [15]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주제에서 벗어난 것들에 주로 몰두한다. 왜냐하면 비방, 동정, 분노 등과 같은 마음의 감정들은 사실에 관련되지 않고, 재판관에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일 모든 판결들이 오늘날의 몇몇 국가들에서, 특히 잘 통치되고 있는 [20] 국가들에서처럼 이루어진다면,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법률이 그렇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법률을 실제로] 사용하여, 아레오파고스 법정에서도 그렇듯이, 주제에서 벗어나 말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그들의 생각은 옳았다. 왜냐하면 재판관을 분노나 질투나 동정으로 유도해서 그의 주의를 [25] 딴 데로 돌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용하려는 자를 구부려 놓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더 나아가 분명히, 소송 당사자가 할 일은 어떤 일이

있는지 있지 않은지, 또는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것 밖에는 없다. 그 일이 중대한지 사소한지, 또는 옳은지 그른지, 입법자가 그것을 규정해 [30] 놓지 않은 한, 재판관은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스스로 인식해야 하지, 그것을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배워서 안 된다.

1354b 그러므로 올바른 제정된 법률이라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직접 규정하고, 가능한 한 최소한의 것만을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 이유는 첫째, 신중하고 입법과 재판의 능력을 겸비한 사람들로써 여럿보다는 | 한 명이나 소수를 발견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둘째, 입법은 장시간의 숙고 끝에 이루어지지만 [법정에서의] 판단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옳음과 이로움을 공정하게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5] 가장 큰 이유는 입법자의 판단은 특수한 경우에 따르지 않고, 미래의 일들에 관련되고 보편적이지만, 민회위원과 재판관은 이미 현재 주어져 있는 특정한 사례들에 대해 판단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흔히 애증과 사익에 이미 얽혀 있어서, [10] 더는 진실을 충분하게 볼 수 없고, 사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하듯, 이런 것들에서 판단자는 최소한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또는 있게 될 것인지 있게 되지 않을 것인지, 있는지 있지 않은지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판단자들의 재량에 [15] 맡겨야 한다. 왜냐하면 입법자가 이런 문제들을 예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분명히, 여타의 것들을 — 예를 들어 서론이나 서술, 그리고 [연설문의] 다른 부분들 각각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를 — 규정하는 사람들은 다들 [연설술의] 주제에서 벗어난 것들을 기술로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20] 어떻게 하면 판단자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궁리만 하지, 기술 내적인 설득수단들에 대해서는, 즉 어떻게 생략삼단논법에 능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회연설과 법정연설의 방법이 같고, 민회활동이 [사적인] 계약에 관련된 활동보다 더 고귀하고 [25] 국가에 더 중요하지만, 그들은 앞의 활동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서도, 민회연설에서는 주제에서 벗어난 것들을 말하는 것이 덜 유익하기 때문에, 다들 법정연설에 대해서 기술로 설명하려 든다. [그리고 민회연설은 더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정연설보다 덜 유해하다.] 왜냐하면 민회에서 판단자는 [30] 자신과 관련된 일[정책]들에 대해 판단하고, 그래서 상황이

조언자가 말하는 대로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 말고는 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연설에서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청중[재판관들]을 제 편으로 만들어야 유리하다. 왜냐하면 그곳의 판단은 남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 이루어지고, 그래서 청중은 자신의 일들을 고려하고 한쪽 편을 들며 청취하면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자신을 맡길 뿐 | [객관적으로]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많은 지역에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주제에서 벗어나 말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민회연설에서는 판단자들이 스스로 충분하게 이를 경계한다.

기술 내적인 방법은 분명히 설득수단들에 관련되어 있고, [5] 설득은 일종의 증명이다(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설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설술적 증명은 생략삼단논법이고(이것은 설득수단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단적으로 말할 만한 것이다), 생략삼단논법은 일종의 추론이다(그리고 모든 추론에 관하여 똑같이 살펴보는 것은 — 변증술 전체든 그것의 일부든 — 변증술의 [10] 일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어떤 것[전체]들로부터 어떻게 추론이 일어나는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생략삼단논법이 어떤 종류의 대상들에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논리학적[변증술적] 추론과 어떤 점들에서 다른지를 더불어 파악한다면, 생략삼단논법에도 가장 능통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과 진실에 가까운 것을 보는 것은 [15] 같은 능력에 속하고, 이와 동시에 인간들은 본래 진실을 향한 성향을 충분하게 갖고 있고 대부분의 진실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념들에 곧장 도달하는 능력은 또한 진실에 관련하여 그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속한다. 이로써, 다른 사람들[연설술 작가들]이 주제에서 벗어난 것들을 기술로 설명한다는 점, [20] 그리고 그들이 법정연설에 더 치중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연설술은 유용하다. 첫째, 진실한 것과 정의로운 것이 그것들에 반대되는 것들보다 본성상 더 강하고, 그래서 만일 판단들이 적절하게 내려지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저절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는, 우리가 [25] 가장 엄밀한 앎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앎을 바탕으로 말로써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앎에 바탕을 둔 논변은 가르침이지만, 이 가르침은 [그들을 상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우리가 《변증론》에서 대중과의 대면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공통의 의견들을 토대로 설득과 논변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변증술적] 추론들의 경우에서처럼, 반대되는 것들 양쪽을 [30] 모두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양쪽의

것을 모두 실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왜냐하면 열등한 것을 실천하도록 설득해서
 는 안 되기 때문이다), 실제 상황이 어떠한지를 간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논변을
 부당하게 펼쳤을 때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반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다른
 기술들은 어떤 것도 반대되는 것들을 추론해내지 않는다. 변증술과 [35] 연설술만
 이 그것을 한다. 왜냐하면 두 기술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반대되는 것들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들의 바탕이 되는 사실들은 같지 않다. 그러나 참인
 것들과 더 나은 것들이 항상 본성상 더 추론해내기 쉽고 한 마디로 말해 더 설득력이
 있다. 게다가, 몸으로 자신을 도울 수 없는 것은 수치스러우면서도 말로써 도울
 1355b 수 없는 것은 | 수치스럽지 않다면 이상할 것이다. 말이 몸을 부리는 것보다 더
 인간에게 고유하다. 그리고 만일 말이 지닌 그러한 힘을 그릇되게 사용함으로써
 커다란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이런 반론은 덕을 제외한
 모든 좋은 것들, [5] 특히 가장 유용한 것들, 예를 들어 체력, 건강, 부, 통솔력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것들을 올바르게 아주 큰 이득이 되겠지만,
 그릇되게 사용한다면 아주 큰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연설술이 어떤 한 가지 특정 종류의 대상을 다루지 않고, 변증술과
 비슷하다는 점, 그것이 유용하다는 점은 [10]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의 과업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우에서 주어진 설득수단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이는 다른 모든 기술들과 마찬가지로(이를테면, 의술의 과업은
 건강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데까지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잘 돌봐줄 수 있기 때문이다). [15] 게다가,
 설득력 있는 것과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것을 인지하는 일은 같은 기술[연설술]에
 속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는 추론과 추론처럼 보이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변증술
 에 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실로, 소피스트술의 본질은 능력에 있지 않고, 의도
 에 있다. 단, 연설술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가 가진 앎이나 의도에 의거해 연설가라
 불리지만, [20] 변증술에서는 의도에 의거해 소피스트라 불리고, 의도가 아니라
 능력에 의거해 변증가라 불린다.

이제, 방법 자체에 대해 — 어떻게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이룰 수 있는지 — 말하도록 해 보자. 그러니 다시 시작하듯
 연설술이 무엇인지 규정한 다음에, 나머지 사항들을 말해 보자.